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등 현안상황 점검
지자체와 빈틈없이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와 농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구제역 방역 등 현안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구제역·AI 방역 현황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전국 구제역 발병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백신 비접종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백신접종 계획을 지자체에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봄철을 맞아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서 자가 소비용 토종닭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출하 전 임상 예찰과 검사 등 철저한 방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란계 농장 검사 및 지도·홍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작업의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축산농가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 이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구성된 적법화 전담 T/F팀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위반유형별 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정책공유와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과 양해각서(MOU) 체결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대표이사 김태환)와 동물보호·복지 의식 함양,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4월 6일 체결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동물의 건강·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농협 본사에서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 행사 추진, 농협회원 농가에 대한 동물복지 무상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동물복지 인증제 추진 관련 자료의 상호 이용 및 교환, 대 국민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농협과의 상호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 우수 아이디어 발굴·공모전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

- 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제안
- ② 식량의 안정적 생산 관련 제안
- ③ 농업의 첨단 융복합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제안
- ④ 국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 관련 제안
- ⑤ 농산물 경쟁력 및 수출 지원 관련 제안
- ⑥ 그 밖에 농산업 육성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제안

5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최우수상(상금 100만원) 각 1점, 우수상(상금 70만원) 각 1점, 장려상(상금 50만원) 각 2점·3점 등 총 9점을 선정한다. 국민제안에 한해 격려상(5만원 상당 상품권) 20점이 추가로 선정된다. 우수제안은 6월 말 발표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고등학생 '식의약 영리더' 50팀 6개 지방청별로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제8기 식의약 영리더'를 4월 9일부터 25일까지 6개 지방청별로 모집했다.

식의약 영리더는 중·고등학생 3~4명이 한 팀이 되어 식의약 소통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UCC·로고송 제작,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식의약 영리더 참가 주제는 당 바로 알고 건강하게 먹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 4개이며, 이 중 1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는 신청자 중 총 50팀 내외로 선정하여 5월 2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활동기간은 5월부터 9월이다. 영리더 선정팀에는 식약처장의 위촉장 수여이 수여되고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참여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새로운 도약
40주년 역사관 '길' 개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3월 30일 나주의 연구원에서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김창길 KREI 원장을 비롯해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역대 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원 40주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소득 정체, 인구 고령화와 농촌지역 공동화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더욱 빨라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은 농업에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업·농촌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살터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터, 국민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쉼터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연구원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40년의 연혁과 연구사를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 40주년 역사관 '길'을 개관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축산물 HACCP작업장 직접 보고
느끼는 'HACCP체험관' 오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4월 2일 식품·축산물 HACCP 작업장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장과 HACCP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볼 수 있는 홍보관으로 구성된 'HACCP 체험관'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HACCP 체험관은 HACCP인증원 본원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체험관은 크게 HACCP 팩토리관과 HACCP 스토리관 2개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HACCP 팩토리관은 HACCP업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위생실, 떡과 빵, 육가공 작업장을 HACCP 기준에 맞춰 시설·장비를 설치해 재현했다. 체험자들이 단계별로 장비를 작동시켜 볼 수가 있는 등 현장감 있고 생생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HACCP 스토리관은 HACCP 역사와 알기 쉬운 해설, VR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체험관, 식품·축산물 HACCP 인증제품을 전시한 제품 전시관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졌다.

인증원은 일반 소비자들의 관람·체험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참가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생들이 위생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해 검증·평가할 수 있는 'Auditing Program'을 개발하고 업체 종사자 및 신규직원 교육 등 내·외부 교육 시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윤 원장은 "체험관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통합공시 일제점검은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공시 대상 40개 항목 중 기관 운영·재무 등과 관련된 14개 중요 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축평원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시로 미공시나 허위공시, 지연공시 등이 없으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벌점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체 점검대상 329개 가운데 축평원을 비롯해 22개뿐이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공시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민단체장 초청 경영간담회
초청대상 확대...현장의견 적극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4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 초청 경영간담회를 통해 전국 농업인단체장과 첫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년대비 규모를 확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전국 78명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했다. 간담회 초청 대상이 전년대비 확대된 것은 농식품 유통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병호 사장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이다.

이병호 사장은 "단체장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수렴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T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데 aT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